

“연기하며 생긴 아픔 김사부가 치유해주셨죠”



‘낭만닥터 김사부2’ 중영... 박은탁 역 김민재

시즌1, 2에 연이어 출연
집으로 돌아온 기분
한석규 선배 조언 많이 받아
“믿고 보는 배우 되고파”

“시즌2가 생긴다면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역시 좋았다는 느낌이에요. 행복했고 보람찬 작품이었습니다.”

26일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만난 김민재(24)는 “시즌3도 하고 싶다. 제안이 오면 무조건 하겠다”며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드러냈다.

전날 중영한 SBS TV 월화극 ‘낭만닥터 김사부2’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지키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시청률 27.1%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김민재는 시즌2에 이어 시즌3에도 출연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돌담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간호사 박은탁 역을 담당했다.

“오랜만에 선배님들을 같은 공간에서 만나 애뜻하고 반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왔어?’ 하고 반겨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김민재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과 시즌2 사이 ‘위대한 유혹자’(2018), ‘조선환담공작소 꽃파당’(2019) 등에 출연했다. 특히 ‘꽃파당’에선 당당한 주연으로 활약했다. 그는 3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다. 조금은 성장하지 않았나 싶다”며 “시즌2의 박은탁을 연기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년이 지나도 박은탁이 그 자리에 있

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주연을 맡다 조언을 하는 것에 고민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직업과 삶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낭만닥터 김사부’를 하게 됐고, 좋은 답을 줬던 작품이기에 무조건 출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함께 사랑 받은 배우 소주연에 대해선 “따뜻하고 마음이 굉장히 여러면서 강한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매우 많은 배려와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라며 “함께 촬영한 멜로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올해로 데뷔 6년 차를 맞은 그는 “안 해본 게 너무 많아 다양한 것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작품을 들어갈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나 상황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스스로가 작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꾸 상처를 내는 것 같아요.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뭐가 최선이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아픔들이 생겨요.”

그는 대선배인 한석규를 향해 “연기를 하며 생긴 아픔들을 잘 치유해 주셨다”고 밝혔다.

“(선배님이) ‘아픈 건 좋은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천천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해주셨고요.”

그의 꿈은 ‘믿고 보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다.

“어디에 도달하자는 생각보다는 주어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재밌게 잘 해보자는 생각이 더 강해요. 즐기면서 잘 해보자. 그게 목표입니다.”

/연합뉴스



광주 MBC ‘핑크피쉬’ 2년 대장정 마무리

총 10부작 ... 29일 오전 10시 30분 마지막 방송

차별과 혐오를 넘어 혐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광주 MBC ‘핑크피쉬’(사진·기획 김민호·연출 백재훈, 최선영)가 ‘대담(對談)한 가게’ 편을 끝으로 2년여의 대장정을 끝낸다. 29일 오전 10시 30분.

‘핑크피쉬’의 ‘대담(對談)한 가게’ 편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문을 연 팝업샵(pop-up shop)의 모습과 초대손님과 나는 대담을 담았다. 혐어가 어떤 요리로 재탄생할지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박찬일, 박준우 셰프가 시식단으로 선발된 시청자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혐어요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뉴스, 시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박혜진 아나운서, ‘판결의 온도’, ‘비정상회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다니엘 린데만 방송인,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보여온 변영주 영화감독, 전라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전라도맛집을 펴내고 있는 황풍년 편집장,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물고기 박사’ 황선도 해양생물학자가 참석했다.

한편 2018년 3부작을 방송한 ‘핑크피쉬’는 지난해 7부작 등 총 10부작을 방송했으며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한국PD대상 작품상, 방송문화진흥회 지역프로그램대상 동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스타 배우·PD 모였지만... ‘하이엔아’ 시청률 하락

김혜수와 주지훈 등 내로라하는 총무로 톱스타들과 스타 PD 정태우까지 모였지만,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6일 CJ ENM과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2월 셋째 주(2월 17일~2월 23일) 콘텐츠영향력평가지수(CPI) 집계에 따르면 SBS TV 금토드라마 ‘하이엔아’가 9위를 기록했다. CPI 지수는 218.1.

지난 21일 방송을 시작한 ‘하이엔아’는 방영 전부터 한껏 기대를 모은 작품이다. 총무로에서 사랑받는 배우 김혜수, 전성기를 찍은 주지훈이 주연으로 출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회까지 방송된 현재는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우세한 듯하다. tvN ‘사랑의 불시착’이 중영해 마땅한 경쟁작이 없는 데도 ‘하이엔아’ 2회는 1회보다 시청률이 하락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6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00 특집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09	3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MBC 뉴스특보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포레스트(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험설계
0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푸르기 식자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2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뉴스브리핑
03	00 테레루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15 출동! 애니멀 레스큐 30 비밀의 바람숲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대 3	
0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00 기본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05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시리즈M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0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0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9	00 특집 KBS 뉴스9			
10	00 정치합시다 <민심포차>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포구만리 스페셜	00 맛남의 광장
11	35 KBS 뉴스특보-코로나19	10 해피투게더 1~2부	05 100분 토론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5 KBS 네트워크 특선 울렷뮤직		30 나는 트로트 가수다	45 나이트라인

EBS1

07:00 출동! 슈퍼핑크	12:10 팻하트	17:45 올리 앤 문(재)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00 다큐 시선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45 페파 피그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디미그와 블랙렛
08:00 당동영 유치원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9:3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4남매 쇼
08:45 방귀대장 뽀뽀	15:10 출동! 슈퍼핑크(재)	20:30 자이언트 팽TV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다큐동화 달팽이	15:5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남미지질기행 - 잃어버린 세계, 로리아마로 가는 길>
09:40 아웅양명 귀여워2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특집 부모특강-0.1%의 비밀	16:25 페파 피그(재)	<봄, 봄이 오면 4부 봄맞은 행복이여라>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영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다큐 시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심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7일(음 2월 4일 庚子)

<p>子</p> <p>36년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해결되리라. 48년생 숨어 있는 바를 찾게 되는 희한함이 보인다. 60년생 이면의 가치까지 감안하는 것이 용이하다. 72년생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84년생 표방하는 바와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96년생 말하고 싶어도 굳이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31, 56</p>	<p>午</p> <p>42년생 예감을 무시하다가 큰코다친다. 54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성사 된다. 66년생 길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성과를 거두는 법이다. 78년생 일단 수용하고 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능률적이다. 90년생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익이 없다. 02년생 다름과 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성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21, 75</p>
<p>丑</p> <p>37년생 모나지 않고 등글게 처리하자. 49년생 짐작함을 잃는다면 연쇄적인 흥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61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할 국량에 이르렀다. 73년생 중된 것이 주된 것보다 더 비중 있다. 85년생 문제점이 보이거든 초기에 발본색원해 타미 생기기 않는다. 97년생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3, 87</p>	<p>未</p> <p>31년생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43년생 직접 만나서 다루어야 타겟 될 수 있는 일이다. 55년생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67년생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이 편하다. 79년생 빈틈없이 시도한다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91년생 지나친 경계심이 공동관경을 축소시킨다. 행운의 숫자 : 16, 54</p>
<p>寅</p> <p>38년생 잦대를 갖고 소신껏 행하면 협조자가 생기리라. 50년생 기저부터 문제점이 보이니 세밀하게 관찰하고 점검해 나아가야겠다. 62년생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다. 74년생 행운이 다가온다. 86년생 긴밀히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98년생 종년에 수확한 곡식을 가득 넣어서 풍속의 쥐 격이라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8, 60</p>	<p>申</p> <p>32년생 주변과 관련된 모든 이의 관심이 모아지는 형태이다. 44년생 활로를 열어 줄 수도 있는 조건이 보인다. 56년생 일사분란하게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68년생 조금 더 애쓰면 성과가 도출 되리라. 80년생 완전한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써 일관해야 할 처지이다. 92년생 주관적인 판단은 소모적인 양상을 야기할 뿐이리라. 행운의 숫자 : 28, 70</p>
<p>卯</p> <p>39년생 치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허술해지기 쉽다. 51년생 의미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부조리한 형태도 나타나게 되느니라. 63년생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이 절실하다. 75년생 얻는 바가 상당히 많겠다. 87년생 상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99년생 냉정하게 판단하자. 행운의 숫자 : 20, 86</p>	<p>酉</p> <p>33년생 실마리가 뒀다가 그 꼬 당황할 수도 있는 면모이다. 45년생 일이 생길 것이니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자. 57년생 과욕하게 되면 절망이 따르는 법이다. 69년생 변함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81년생 다시 살펴본다면 분명히 빈틈이 보일 것이다. 93년생 관행을 중시하고 순리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97</p>
<p>辰</p> <p>40년생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모순이 보인다. 52년생 이용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64년생 광명한 외관과 기교 속에 맹점이 숨어 있다. 76년생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느니라. 88년생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보인다. 00년생 맹점을 보인다면 흥의 원인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4, 94</p>	<p>戌</p> <p>34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다보면 길정을 부르게 된다. 46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시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58년생 효과를 보지 못 하리라. 70년생 병행하여 나아가도 무리가 없다. 82년생 개별적인 취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함유가 유용하다. 94년생 목적이 부합하는 행보만이 성사에 일조하는 의미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9, 83</p>
<p>巳</p> <p>41년생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끝맺음만큼은 알맞 것이다. 53년생 시작은 좋지만 원활한 마무리가 어렵다. 65년생 중요한 일이나 확실하게 해두어야 후환이 없다. 77년생 필연임을 알아야 한다. 89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끌 수도 있느니라. 01년생 새옹지마요, 전화위복의 격이다. 행운의 숫자 : 39, 84</p>	<p>亥</p> <p>35년생 느낌이 여의치 않다면 중도에 내려놓아도 된다. 47년생 예상 밖의 커다란 변수가 보이니 대비하라. 59년생 겹치는 일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71년생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니 처세에 신경을 써라. 83년생 환경이 바뀌면 서서히 움직이는 양태이다. 95년생 착수한다 하면 손조를 게 진행될 것이니 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7, 73</p>